第二版 大正十四年七月八日【水曜日】 The Chosun Ilbo. (The Korea Daily News) Seoul. 〔第三種郵便物認可〕 第一千七百六十三號 【一】

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社說

레닌그라드와 스탄불 — 現代를말하는兩個의地名

一

一九一四年八月 露獨間의戰亂이벌어지며 『隱忍한지이미七年이라』고부르지진『니콜라쓰』二世는 그의獨逸語로合成된首都의名稱을고치어『페트로그라드』라하야 써露國民의敵愾心을激發하기에努力하엿섯다 이러한擧措가 얼마나露國民의敵愾心을鼓舞하는實效가잇섯든지는 오늘날에잇서자못不明하바어니와 一九二四年一月 그의無産革命의巨人『레닌』氏의逝去에際하야 그의多數同志의熱烈한感激으로命名한『레닌그라드』의 新市名은 자못世界的으로萬人의 注目을끌고 歷史的으로도 特書의事實이되엿다 그러나이제歐洲로부터來着한 一片의飛報가잇서 新興한土耳其의零落한古都『콘스탄티노플』의名稱을廢止하고 다시『스탄불』이란土耳其式의名稱을使用케됨을傳하니 이도또한吾人의 深長한興味를끄는바이다

二

『발칸』의一角으로부터小亞細亞의內陸에驅逐되어 一片新月의國旗 겨우復活의意氣를表象하는 近東의一小國土耳其의市名改正을報하는 小小한外報가 그다지重大한意味를가지지못할은當然한일이다 그러나『레닌그라드』의名稱이 世界的또歷史的의重大한感激및意義가잇다할진대 『스탄불』의命名도또한現代에關한歷史的意義의一重要部分을表象하는者로서世人의看過함을許치아니할바이다 前者가征服과侵略 支配와抑壓의結晶인帝政露國의根幹勢力『로마노프』王朝의開祖 그들의帝國主義的英雄『피-터』大帝에對한叛逆및그에對한被壓迫民衆의解放또는無産革命의勝利를 永久히讚美코자하는階級的意識의奮放하는情操를象徵함이라할진대後者는排斥과差別 征服과抑壓의基本的原因을짓는 人種的偏見및그優越感에對한小弱民族의鬱憤및그鬪爭心의發動을意味하는者이다 그리고兩者가모다現代人類社會의底面에橫流하는感憤과및意力을 如實하게表現하는바이다

三

歐洲의大戰亂이政治的優越및經濟的飽滿狀態에잇는 强大國民의自體에잇서서는 利害를달리하는階級的對立및鬪爭의形勢를激成하엿고國家的不平等및民族的隸屬의狀態에잇는 小弱國民에게잇서서는 그의民族的自立및抗爭의氣勢를白熱化한것은特히吾人의指摘함을要치아니할바이다 그리고阿弗利加로부터全亞細亞大陸에미치기까지 衆多한被壓迫民族이 모다그의獨自의立脚地에出發하야 特殊한抗爭의運動을닐으키는것은 六七年來絡繹하는 各種의報道가이를 證言하는바이다 그리고『니콜라이•레닌』이苦心經營한拘囚와追放의生涯로부터勃興하야滔滔한無産大衆을 指導하고또統御하야 世界的舊制의强大한專制的帝政을倒壞하고 前者는赤色政權의樹立을完成한것이世界的및歷史的으로一大偉觀이라할진대『무스타파•케말파샤』가零落한土耳其의陣營으로부터嶄然히頭角을들어내여 白浪이滔天하는歐洲人의大海에서 一個의黃色小島를 確保하게된것도 또한一奇觀이라할것이다

四

第四世紀中羅馬의皇帝『콘스탄티누쓰』가 天下統一의餘威를빌어『콘스탄티노플』에奠都한後以來悠悠한歲月을거치어 오는날까지지왓섯다 이基督教을崇하든 羅馬의大帝王에依하야 開創된 羅甸系의名稱을가진都府를 回教國의盟主『설탄』의都府의稱號로서依然히使用되든것이 돌이어回教徒의意氣를疑惑케하든 일이엇섯다 그러나이제 『설탄』을放逐하야世界의回教徒를驚異케하든 共和政治下의土耳其人이 다시그의國民的國有語인『스탄불』로서 그의追憶이 깁흔累世紀來의古都를命名하니 비록그成功한國民運動을紀念코저하는 事後의閑事일지나 그의鬱發하는國民的및民族的感情이 자못陸離한光芒의쏘음을볼수잇는바이다

五

民族의解放을爲하야抗爭하는 小弱國또는領屬地의住民은 世界의現狀打破에 重要한努力이되는것이다 그는被抑壓階級과同一한權利로서 世界의帝國主義를打破하는 戰士가되는것이다 人類의一被壓迫民族의擡頭는 人類의一大進步를意味함이다 『植民地의文明啓發』를讚稱하면서 平和의이름으로서『植民政策』을云爲하는僞善惡意는 맛당히步一步식崩壞되어야할것이다 그리하야 小弱國民의民族的覺醒및抗爭은 그의並生한階級的覺醒및抗爭의意氣와함께 一層明瞭하고또白熱하여야할것이다 『레닌그라드』와『스탄불』은 現代의人類가建設한二個의關門이다

南京의巡警罷業

警察廳長負傷에同情하야 即日午後에이르러全部就業

(東京電) 當局着電에依하면南京에서七月三日城內와下關一帶巡警全部가同盟罷業을行하엿는데彼等은王警察廳長의負傷에對하야同情하야그가티罷業한것이며一時的罷業이엇든지同日午後부터全部警察事務에復職하엿다

汕頭在留外人不安

日英人은그領事館으로避難

(東京電) 某所着電、汕頭에서는其後中國官憲이軍隊를增派하야學生勞働者의示威를嚴重히取締하고잇슴으로市內一帶는無事하나各種의謠言이아즉도盛行하고在留民은不安의念에싸히며在留日本人等은領事館에避難하고英國人은汕頭對岸에잇는領事館을中心으로하야避難하엿는데日英人에對한一般盟罷와非買同盟等은尙今繼續되야中國人雇人掃除夫外지全部罷業하고食料品非賣同盟을하는中임으로外人의生活은매우困難하게되엿더라

米公使의北京行과 國際會議提唱說

日外務當局은此를否定

(東京電) 米國公使『맥크마레ㅣ』氏가數日間上海에滯在한後北京으로向할豫定이엇든것을變更하야急遽히北京에到着한事에對하야서는國際會議提唱의訓電에接한結果이리라는說이잇는바日本外務當局에서는此를否定하고北京外交團會議가重要問題의進展을觀望中임으로速히同公使의列席을希望한外닭이라고觀測되더라

上海事件의處罰問題와

日外務當局觀測

(東京電) 北京公使團이上海事件을解決코저工部局主腦、市參事會議長、警視總監、暴行한巡察署長의處罰을協議하고上海領事團에訓令한結果市參事會와外交團間에問題를惹起하엿는바日本外務當局에서『工部局은通商條約에立脚한것으로公使團의決議를拒絕할資格이잇는것이아니다 今回의決議는公使團의自發的讓步로中國側에好感을與하야排外運動은此로부터緩和되리라』고觀測되더라

勃國共産主義者 二十三名死刑宣告

政府轉覆을計劃타가

(『나우엔』七月發) 『쏠가리아、떠불린지』軍事裁判所는政府轉覆의革命을計劃한犯人共産主義者中二十三名에對하야는死刑、十名에對하야는無期懲役의刑을宣告하엿더라

共産黨首領도被殺

同國國境에서

(나우엔無電七日發) 『쏠가리아』共産黨首領『포포라』同主義者『코푸는독유ㅣ고ㅣ』等은『비아』에서『쏠가리아』國境으로드러가다가何者에게지殺害되엿는데同人이持參한文書中에는再次革命을이르킬計劃이잇섯더라

獨逸工業團體 高率租稅抗議

戰時의三倍나된다고

(『나우엔』七日發) 獨逸의諸工業團體는目下生産이非常히減縮되고따러서輸出도減少하엿슴에不拘하고戰前의三倍나되는高率租稅에對한抗議를議會……

獨逸의總人口 約六千餘萬人 戰前보다減少

社會局의新事業

辭令

全市吊旗揭揚裡에 殉國學生追悼會

悲壯한排外演說도잇섯다

筏橋青年會에서 青總委員否認

銓衡委員부터反對

少年四百 三伏節의監獄에 罪에우는少年數

高原青年會도 青總委員否認

其他主要討議

江陵에도 衡平分社創立

裡里에朝鮮正文講座

收繭高가增加햇다고 五百圓짜리宴會

千石突破라고紀念遊興 任實蠶業組合의所爲

群山署管內 犯罪件漸增加

五月보다五分增加

軍威郡에 理想的副業村

金村學校에 復興의曙光

有志者는義捐으로 有財者는金圓으로

禮安學父兄會에서 不良訓導排斥

運動金剩餘金은留案

普校位置問題로 數個洞民大憤慨

面長不信任說藉藉

「現下生活의急務는農?工?」

農便이逢勝利

印刷職工委員會

三陟郡에 衡平分社

階級解放의初擊

音樂演奏會

馬山幼稚園의

蔚珍講習所有望

開城各校夏期休暇日割

虎溪面有志

金堤庭球 리十戰

優勝은金堤青年

柳峴驛客月業績

兩普校蹴球戰

讀書俱樂部委員會

禮安青年五週紀念

教育會總會開催

獎學團臨時總會

白川教會의「幼年주主日」

盛況裡에閉會

安溪金融組合 金成德君에게

載寧에서 夏令會開催

全朝鮮庭球大會

清州普校의盛況

三崇校施賞式

受賞者百五十名 盛況으로始終

養精義塾運動

文化軍到處勝利

固城에女子傳道會

金堤驛業務成績

倭館見學團來泉

東萊音樂會盛況

山館運輸總會

九郡聯合庭球外 開催地人士同情

東萊高普父兄會

寸鐵

烏木啄 (投稿歡迎)